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유상철 세례자요한 신부 / 살레시오회

## “죽음을 왜 생각하게 하지?”

“묘비명을 작성해 볼까요~.

내 묘비에 어떤 문구가 적혔으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하고 적어 보세요”  
초등학교 교리 시간에 선생님이 묘비명 작성을 해 보도록 초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묘비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나중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저는 멍하니 묘비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수업을 하지? 왜 초등학생인 내게 죽음을 생각하게 하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원과 분류심사원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며 그들 손목에 그어져 있는 흉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화에 물들어 쉽게 삶을 포기하는 말들을 내뱉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왜 일찍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교리 시간에 선생님이 초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월 위령성월입니다. 먼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도록 교회는 초대합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교회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는 한 달을 보냈으면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빛의 사람들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죽음 이후 새 생명에 대한 희망과 새 생명을 얻어 살기 위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이 되어 보여주는 ‘빛의사람들’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빛의사람들’ 가족 모두가 죽음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청소년들이 생명의 문화를 이끄는 주체로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교육하며 동반하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보내는 어머님께 드리는 글

이제 30분 후에는 제 목에 이 생애 마지막인 죽음의 밧줄이 걸어질 것입니다.  
교도관에게 양해를 얻어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하여 마지막 어머님께 이 글을 씁니다.  
어머님께서 이 글을 받아 보실 때는 저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겠지요.  
사랑하는 어머니 그동안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평온한 것은 믿음과 부활로 영킨 희망이 아니겠는지요.  
오늘은 제게 있어서 최대의 승리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극도의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파렴치한 사형수가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좀 더 가깝게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느님을 사랑했더라면 지금 같은 쓰라린 이런 가슴을 움켜쥐지는 않았겠지요.  
지금 앞을 가릴 수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죽음이 서러워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 죽어간 피해자에게 용서를 청하는 마지막 세상에서  
의 뉘우침입니다.  
어머니 너무 떨려 오네요,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로 해요.  
교도관이 눈짓하는군요.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됐나 봅니다, 떨려 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저를 돌봐준 많은 어머님 그리고 후원회 회원님들 편안히 계시다  
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이제 기쁘게 떠나렵니다. 울지 않으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천주교 동산에 꼭 묻어주시고 일 년에 한 번만이라도 찾아주세요.  
이 펜을 놓으면 저는 바로 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저에 마지막 큰 절 받으세요.  
어머니.....

권 베드로 올림

\* 1990년 4월 12일 사형집행으로 주님 곁으로 돌아간 권 베드로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1월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형수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선희 까리따스\_서울구치소 최고수 봉사자

+ 찬미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교정사목 봉사를 교구 주보 소식란에서 자주 접하게 되어 본당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도 때가 되면 봉사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저의 배우자가 신부님의 권유로 10여 년 전 모범수로 잘살고 있는 형제님의 전진 대부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준비는 되어있지 않았지만, 자연스레 봉사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소리 없이 불어오듯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주님 계획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한 공간에서 사는 형제님들을 종교행사 안에서 한 분씩 만나 그분들의 삶과 신앙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은 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감사와 은총의 시간이었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보람과 흐뭇함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혼탁한 세상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분이 전혀 거리감이나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봉쇄 수도원에서 지내는 수사님이 많은 시간을 주님 말씀과 기도로 지내며 영적인 보화를 담아와 들려주시는 것처럼 형제님들과 깊은 묵상 나눔은 세속에 사는 저 자신이 희망의 빛을 듬뿍 안고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얼마나 힘든 시간 들을 보낼까 생각하면 가슴 한가득 먹먹해지곤 합니다.

초유의 세계적 재난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종식되어 성모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나라에 평화로움을 허락하셔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셨듯이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모님께도 전구를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하고 계실 교정사목 담당 신부님들과 수녀님을 비롯한 교정위원 모든 분에게도 영육 간의 건강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하루빨리 봉사가 재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요셉(2)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올해 10월 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새로운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를 반포하셨습니다. 이 회칙에서 ‘용서는 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forgiving does not mean forgetting)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화해, 참된 용서란 있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두리몽실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시 얼굴 붉히는 것을 피하고자, 이제 좋은 관계로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깐 없던 것으로 얼버무리는 것을 용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거짓 용서, 거짓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사실을 담담하게 밝힙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창세 45,4)

요셉의 용서와 형제들과 화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합니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창세 45,5)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창세 50,20)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로 가고 감옥살이한 것을 ‘하느님께서 좋게 꾸며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섭리로 된 것’이라고 네 번이나 말합니다(45,4-5; 45,7; 45,8; 50,2). 요셉은 자신의 기구한 인생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기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 손길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난 사건들을 잘 돌아보고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찌면 신앙인이란, 하느님께서서는 좋은 일만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루어진 여러 사건, 심지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손길, 구원과 섭리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 사건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나게 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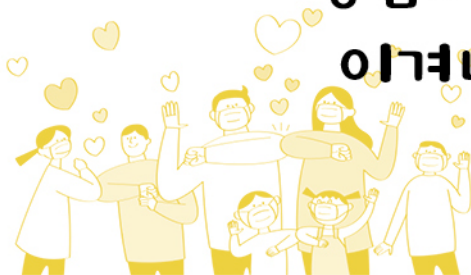
화해는 용서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단계입니다. 화해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 손길을 발견했기에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형제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통회, 진지하고 성실한 책임의식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드리며, 이미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형제들을 용서하였어도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부둥켜안으면서 나 너희들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형들을 시험해봅니다. 감옥에 가두기도하고 오지 않은 막내를 데려오라고 억지스러운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포대에 넣어보기도 하고 은잔을 형제들의 자루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단순히 요셉이 당했던 어려움에 대한 보복이라기보다는 형제들의 내적인 상태를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는 모습, 아버지와 베냐민을 아끼는 마음을 눈여겨 봅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힌 것은, 형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나선 이후였습니다(창세 44,18-34). 그러한 길고도 오랜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렸을 때에서야 비로소 관계의 회복을 위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호에는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 요셉과 창세기의 첫 인물인 아담을 비교하였습니다. 아담은 낙원에서 유일하게 금했던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하느님과 멀어지는데, 요셉은 힘든 타향생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느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느님과 함께 지내고, 머무는 곳, 어디든지 낙원으로 만듭니다.

요셉은 카인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카인은 형제간의 불편함을 폭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와의 불화를 화해와 용서로 바꾸어냅니다. 이 역시 자신의 인생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바꾸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긴 여정을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은 화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 부둥켜안고, 형제 가족 모두 이집트에 머무르며 한참을 보내고 나서도, 아버지 야곱의 죽음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양값음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창세 50,15참조), 용서를 다시 확인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용서나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용서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수 역시 하느님의 일입니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창세 50,19)라는 말을 통해 원수갚는 일, 보복하는 일은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용서가 어렵다고 하여 복수를 다짐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후원회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창업자에게 가혹한 코로나19, 이겨내도록 응원해주세요.



김일호 미카엘 / 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최근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과 바깥 활동 제약에 따른 답답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을 피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변했습니다.

소비심리 회복 지연,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대면 활동 기피 현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서 직장까지 사람들의 만남이 줄어들었고 거리가 한산해져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걱정으로 한숨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한 창업자들도 이 위기를 피해 나가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소자라는 약점으로 일반인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버티며 운영하는 창업자들에게 힘과 응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침체에 우리 모두 힘들지만, 다시 시작하려는 창업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리만큼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아주고, 같이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강도의 차이도 있지만 각자 개인이 느끼는 어려움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는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어려움의 의미는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기쁨과희망은행을 후원해주시면서 기도와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신부님의 관심과 사랑에 저와 아이들의 마음이 위로 받고 있어요.

또한 청주, 원주에 계신 신부님과 수녀님께도 너무 감사 합니다.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글과 그림 뿐이라서 너무 죄송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 여호와 나의 주님.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창장 위에 나를 누이시네.

선한 목자 ~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하시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시떨 이예요. 함께 나눠 보고 싶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매님이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께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2020년 12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빛소식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 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2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12월 월례미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 기념 영상

1970년 4월 2일 '교도소 후원회'를 설립한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2020년 50주년을 맞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0주년 기념 미사

■ 일시: 2020년 12월 13일(주일) 12:00

■ 장소: 명동대성당 ■ 집전: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만 미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YouTube)에서 '평화방송'을 검색하시면 미사 당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9/9~10/12)

2020년 9월~10월에는 공복희 안나, 구경모, 김계숙 마리아, 김기현 사도요한, 김동란 엘리사벳, 김수자 데레사, 김정 아베로니카, 김정자 소화데레사, 남길용, 노미수 베네란다, 류영희 베로니카, 맹주연 마리아, 박현주 레지나, 박형숙 데레사, 변현지 소화데레사, 승영숙 크리스티나, 양윤희 안나, 연인종 발레리오, 유지운, 은희옥 마리아, 이경숙 로사, 이만재 안드레아, 이미자 도미니카, 이정윤 율리아, 전덕자 카타리나, 정옥자 소화데레사, 정재분 마리아, 정정자 글라라, 정하나, 조미랑 안젤라, 조육경 켄마, 최윤지 발레리아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선윤, 김훈 피터데미안, 김마리아, 김아네스, 박희정 데레사, 배만선 요셉, 심현지 율리안나, 오순애 레지나, 정가밀라 수녀님, 김스무역, 한송이 글라라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밀린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